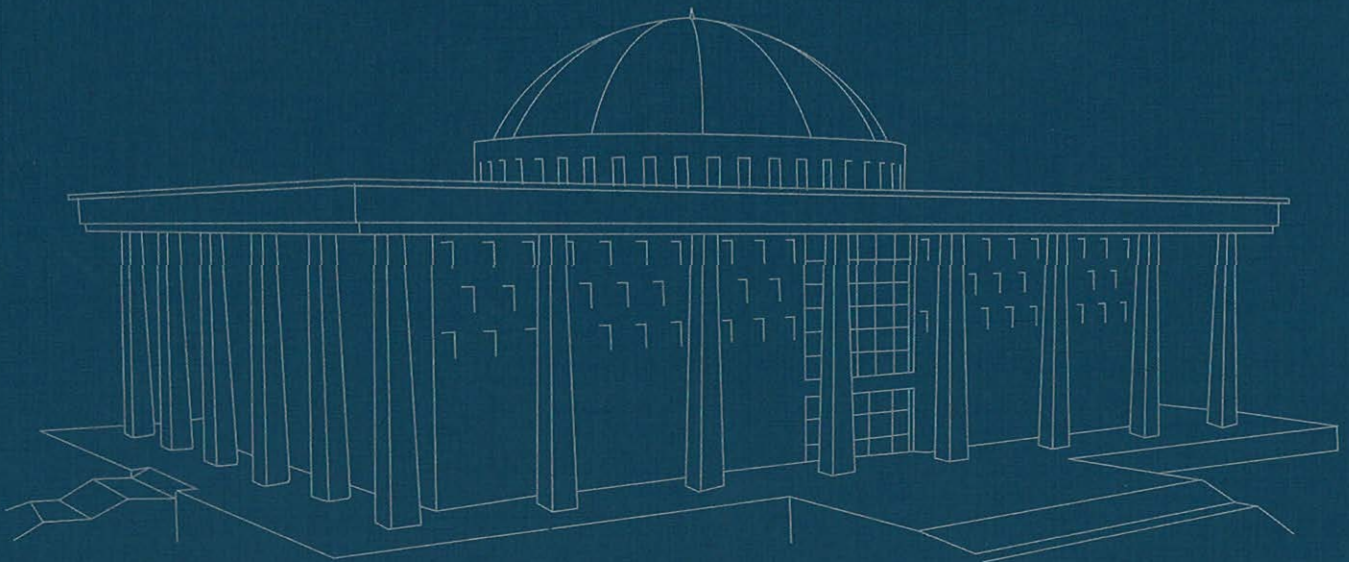


중소기업 유동성 및 보증 공급 확대방안

2009. 2. 6.



대한민국 국회

중소기업 유동성 및 보증 공급 확대방안

2009. 2. 6.

소	속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
집	필	: 정상훈(shjung@nabo.go.kr)
문	의	: 788-4652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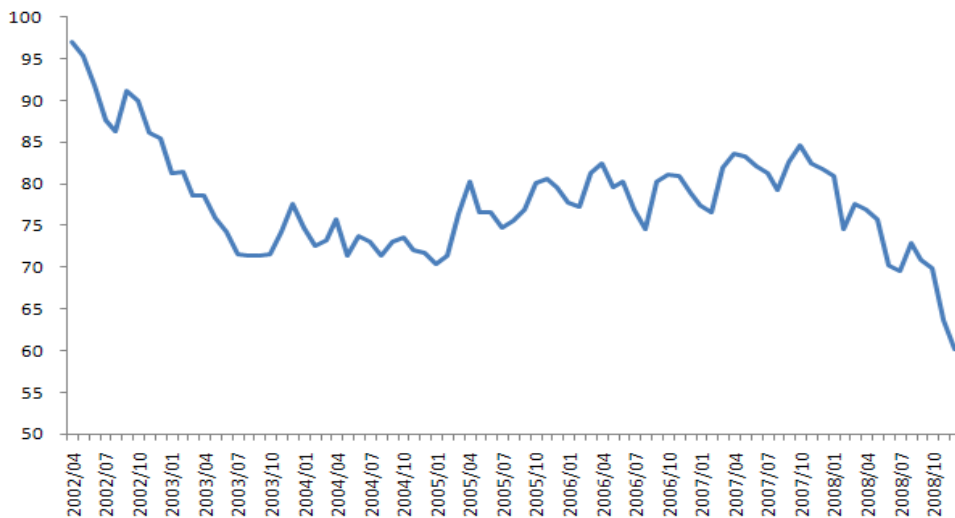
-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기피로 인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Fast Trac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음
- 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은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이므로, 향후 신용보증공급액을 확대하고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예산편성 시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총액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보증공급 확대로 인해 향후 신용보증기관이 방만히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금융기관 및 대기업출연을 유도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보증기관과의 정책혼선을 막기 위하여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I.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1. 중소기업 자금조달 사정

- 중소기업(제조업) 부문의 자금조달 사정은 2007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8년말에 크게 악화되고 있음
 - 2008년말부터 중소기업 자금조달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0을 하회하여 2008년 12월 현재 60.1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그림 1] 중소기업(제조업) 부문의 자금조달사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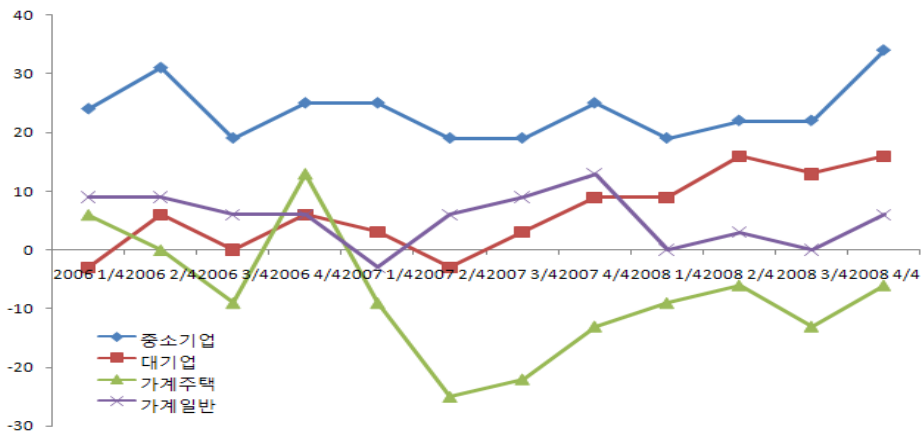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¹⁾는 2008년 4/4분기에 증가하였으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1) 대출행태지수는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단을 5개 응답항목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로 기준치는 0이며, 100과 -100 사이에 분포한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는 대기업 및 가계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8년 4/4분기의 대출수요지수가 36으로 전 분기에 비하여 50% 이상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증가는 대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특히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2007년 상반기까지 대기업, 가계 부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8년 4/4분기 현재 대기업 등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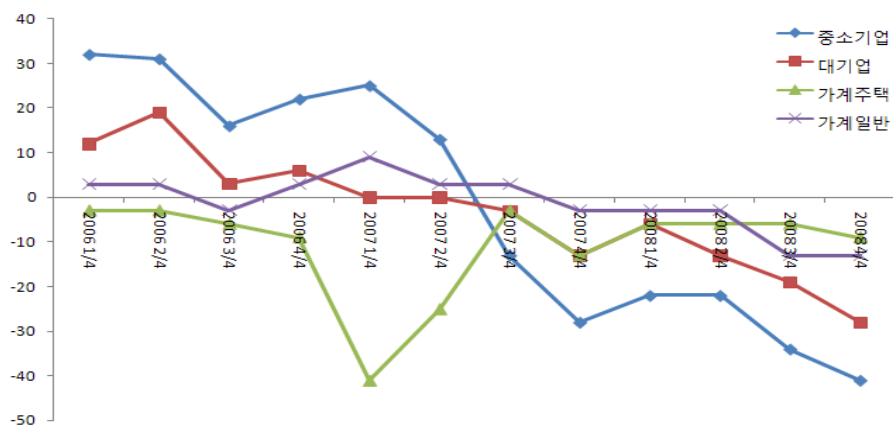
[그림 2] 국내은행 대출수요지수 추이 및 전망



주: 2008 4/4분기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2008.10

[그림 3] 국내은행 대출태도지수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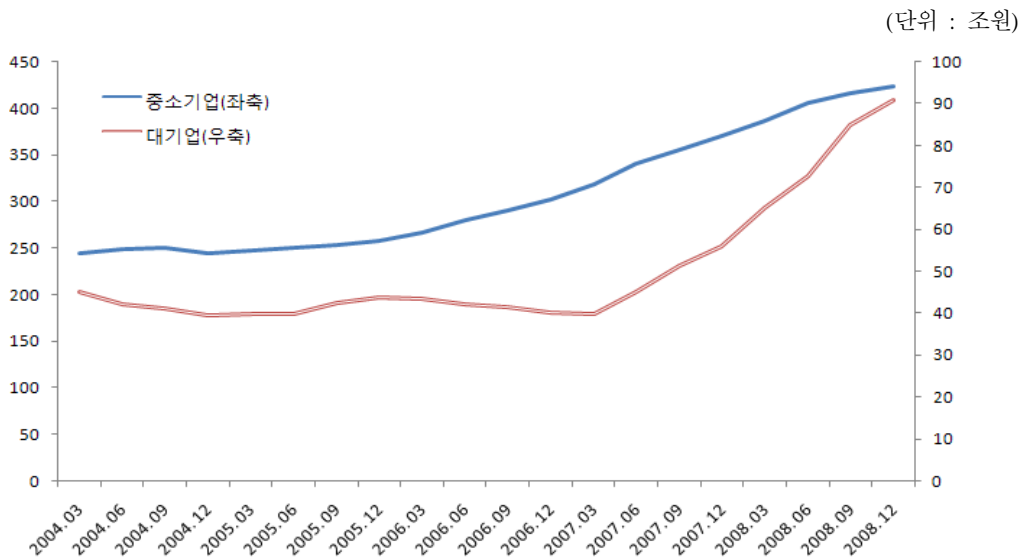
주: 2008 4/4분기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2008.10

2.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 2008년 12월말 현재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잔액은 424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국내은행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임
 - 대기업의 대출잔액은 2007년말에 비하여 약 62.8%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약 14.4% 증가하여 증가율 및 증가속도가 대기업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임

[그림 4] 중소기업 대출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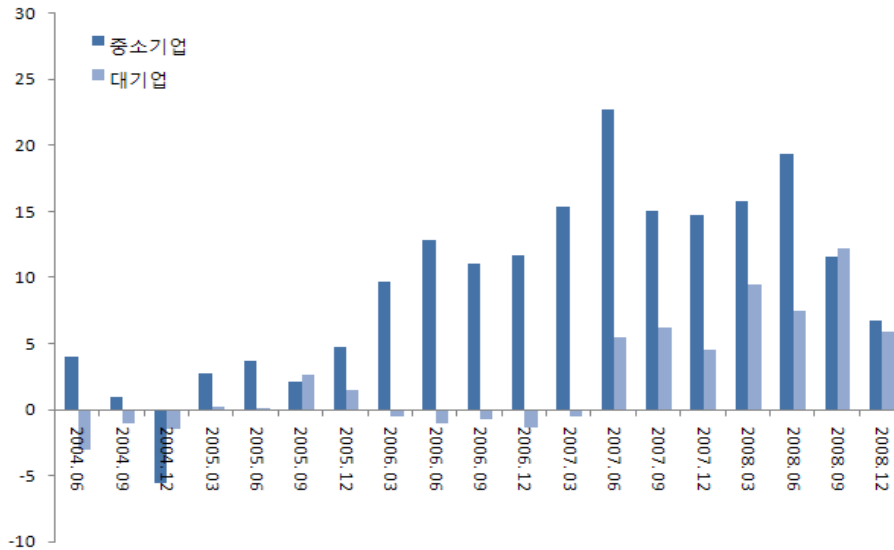


주 : 2008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이에 따라 2008년 12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액은 6.7조원으로 대기업 대출잔액 증가액인 5.9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 대출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 추이는 2007년 12월에 비하여 5%p 가량 하락함
 - 반대로 대기업 대출 비중 추이는 2007년 12월 13.11%에서 2008년 9월 17.67%로 약 4.5%p 가량 상승하였음

[그림 5]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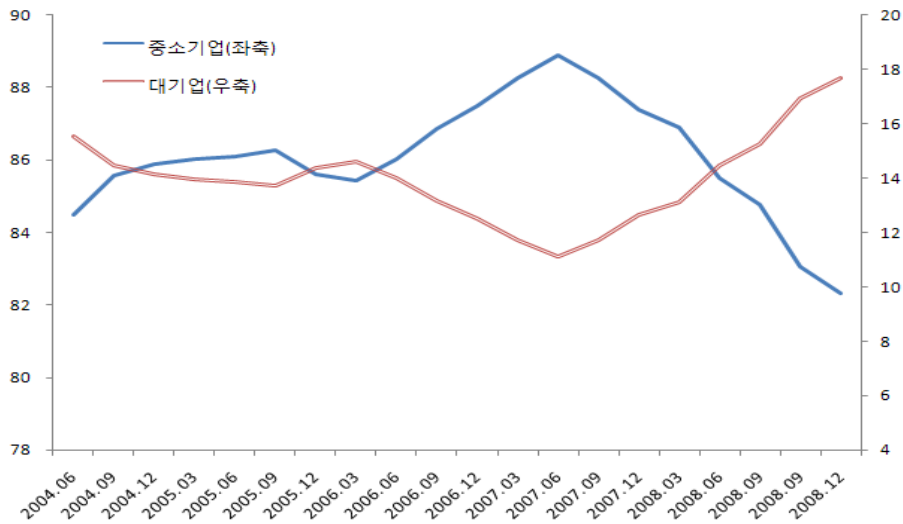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주 : 2008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그림 6] 기업대출 대비 중소기업 대출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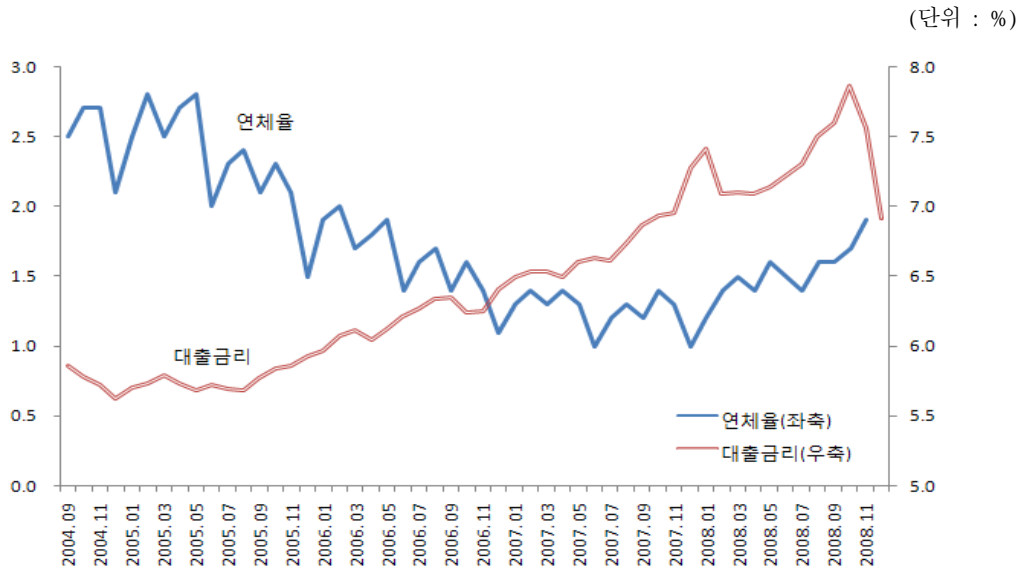


주 : 2008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3. 중소기업 대출금리 및 연체율 현황

- 정부의 기준금리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유동성문제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하락이 쉽지 않은 상황임
 - CD금리가 2008년 10월에 최고점인 6.18%를 기록한 후 기준금리 인하정책에 의해 2008년 10월말 5.98%, 11월말 5.45%, 12월말 3.93%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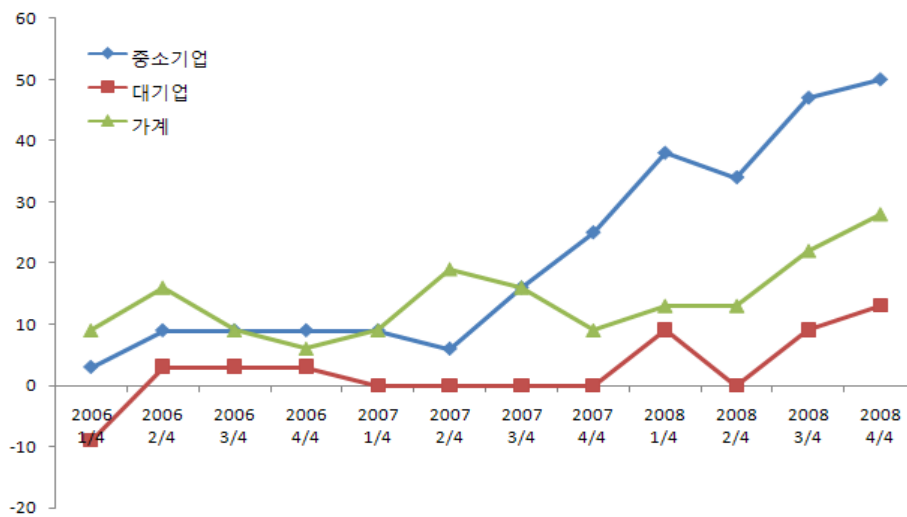
[그림 7] 중소기업 대출금리 및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2007년 상반기까지 대기업 및 가계부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타부문에 비하여 2배 가량 높은 상황임
 -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2008년 11월 현재 1.9%로 2007년 말에 비하여 0.9%p 상승하여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림 8]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 추이 및 전망



주: 2008 4/4분기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2008.10

II.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성과 분석

1. 2008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계획²⁾

- 정부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한시적(~'09.6)으로 ‘중소기업 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 1,672개사에 2.8조원을 지원함
 -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및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고 A, B등급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지원함
 - A등급 기업은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B등급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 Fast Track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결정함
 - 상시기업평가 결과 C등급 기업은 종래 워크아웃절차에 따라 지원방안(출자전환, 대출지원, 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을 모색함

[표 1] Fast Track 유동성 지원실적

(단위 : 개사, 억원)

	지원업체수			지원금액				
	지원 신청	평가 완료	지원 완료	대출 전환	신규 여신	만기 연장	기타	합계
KIKO기업	642	605	413	7,055	959	6,244	12	14,270
일반기업	4,531	3,125	1,259	-	4,819	9,049	51	13,919
합 계	5,173	3,730	1,672	7,055	5,778	15,293	63	28,189

주 : 은행별 지원실적을 단순합산한 기업 수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8년 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 2009. 1 참조

- 신용도 취약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08년 중 1조원 규모의 유동화증권(CBO) 발행을 완료함
 - 3차 발행분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인수하여 발행금리(8.4%→6.6%) 및 가산금리(50bp→5bp)가 1, 2차 CBO보다 낮아져 기업의 부담이 완화됨
 - 2009년 P-CBO를 2조원 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함
-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2008년 9월 개설하여 총 1,06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526건(49.6%)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융애로 사항을 수용하여 총 5,043억원을 지원함
-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 약 5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2009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함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 규모를 48조원으로 6조원 이상 확대하여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함 (신보의 P-CBO 보증은 별도로 2조원 확대함)
 - 신보 : ('08) 29.5조원 → ('09) 33.5조원
 - 기보 : ('08) 12.5조원 → ('09) 14.5조원
 - 설비투자 유도, 기업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산은·기은의 자금공급을 확대함
 - 산업은행 : ('08) 27조원 → ('09) 32조원
 - 기업은행 : ('08) 27조원 → ('09) 36조원
 -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자본 확충을 지원함
 -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임직원 면책 규정을 도입함
-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동시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으나 회생가능한 기업에 자금공급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함
 - Fast Track을 통해 유동성 애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구조조정 차원의 워크아웃도 신속하게 추진함

2.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정책의 성과 및 딜레마

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성과 검토

-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액은 2008년 9월부터 대기업대출보다 크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기업대출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책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12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한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이행상황 긴급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80%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해 정부당국의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노력의 기업현장 도움 정도 (단위 : %)

	큰 도움	조금 도움	보통	별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관련사항 없음
전체	5.2	8.2	12.4	23.6	46.4	4.3
소기업	5.1	7.1	9.6	25.0	48.7	4.5
중기업	5.2	10.4	18.2	20.8	41.8	3.9
시중은행	4.5	8.9	11.9	23.3	47.0	4.5
지방은행	9.7	3.2	16.1	25.8	41.9	3.2

자료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은행 대출기피’가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동성 지원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은행의 대출기피가 유동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확대가 유동성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기침체 요인에 의해 재무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판단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

	은행 대출기피	필요자금에 비해 소액지원	자금지원 장기간 소요	신용보증서 발급기피	재무제표 위주 신용평가
전체	63.9	28.8	14.1	36.1	52.4
소기업	60.9	27.3	14.1	37.5	56.3
중기업	69.8	31.7	14.3	33.3	44.4
시중은행	61.7	26.3	15.0	35.3	51.5
지방은행	79.2	45.8	8.3	41.7	58.3

자료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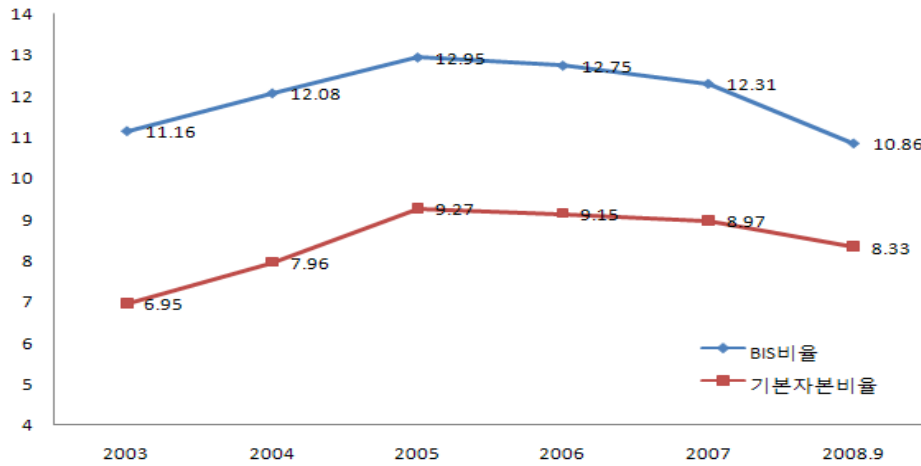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은행의 자금공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나,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임
-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확대되면서 자기자본이 6.4조원(4.7%) 감소하여 2008년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카드대란 사태를 겪었던 2003년 3월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86%를 기록함

- 특히,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은행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그림 9] 국내은행의 Tier1, BIS 비율 추이

(단위 : %)



주 : 2008년부터 바젤Ⅱ, 이전은 바젤Ⅰ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표 4]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

(단위 : %)

구 분	2007.12	2008. 3	2008. 6	2008. 9	2008.11
부실채권비율	0.99	1.13	1.06	1.33	-
연체율	1.00	1.29	1.14	1.50	1.86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은행의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인 상황이므로 은행에 대한 창구 지도를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정책은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임
 - 은행이 건전성 및 신용도 관리를 위하여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신용보증서부 대출마저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유동성 공급이 은행의 신용도 위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동시에 이로 인해 은행의 신용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두 가지 방향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자금지원 → 중소기업 부채증가(재무구조 악화) → 은행의 대출위험도 증가 → 은행의 대출기피’라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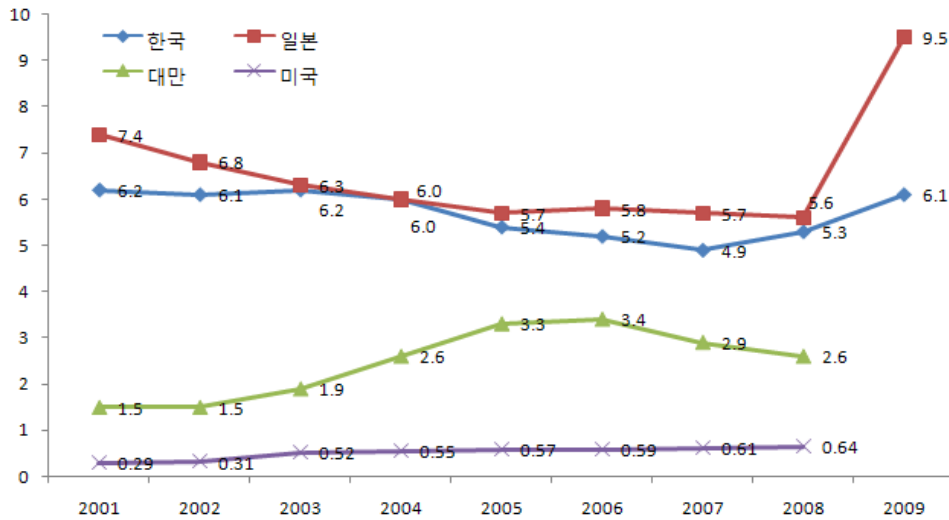
Ⅲ.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1.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의 확대

- 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은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이 될 것임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으로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위험을 정부가 감수할 경우 은행의 신용도 위험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들 신용보증기관의 운용배수가 12~13배 가량 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증공급의 확대는 적은 재원의 투입으로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바젤Ⅱ에 의하여 신용보증 대상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0%로 하락함에 따라(바젤Ⅰ에서는 위험가중치가 10%) 보증의 대출효용성이 더 커졌으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해짐
- 일본, 미국 역시 보증규모의 적극적인 확대 등 신용보증의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9년 보증 순증규모를 당초 6조엔에서 20조엔으로 확대함에 따라 2009년말 일본의 보증잔액은 48.9조엔으로 GDP 대비 9.5%, 중기대출 대비 18.0%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 미국은 중소기업청(SBA)의 예산증액 및 인원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SBA의 대표적 보증프로그램인 7(a)대출보증과 504시설자금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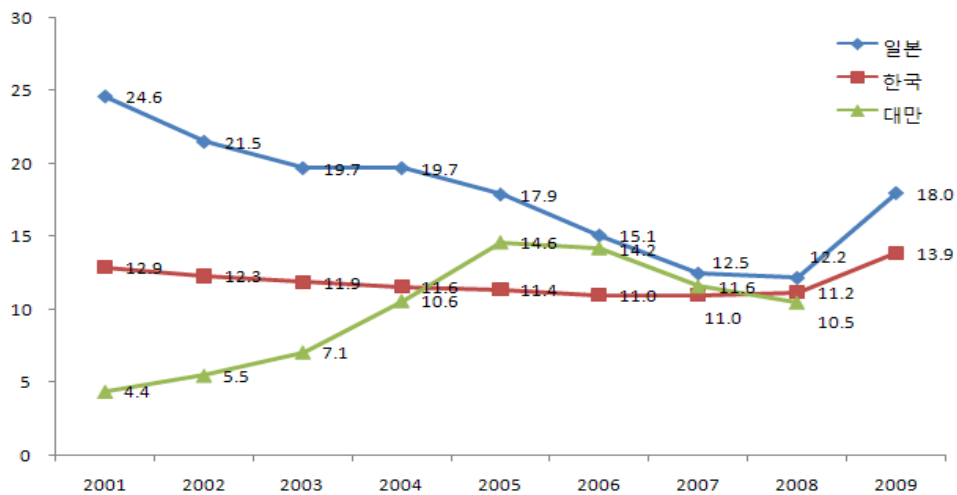
[그림 10] 주요국의 GDP 대비 보증규모

(단위 : %)



[그림 11] 주요국의 중기대출 기준 보증활용도

(단위 : %)



주 : 1) 한국은 신보, 기보, 채단 합산치이며, 일반보증 기준임.
 2) 2008년, 2009년은 전망치임 (2007년 GDP 적용, 일본은 2008년 8월 보증잔액 기준)
 3) 중기대출기준 보증활용도 = 보증잔액 / 중기대출잔액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신용보증기금 요청자료

- 따라서 향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을 확대하고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신보와 기보는 총 18.2조원의 신규보증 공급을 할 예정이며 총 GDP 대비 보증공급 규모는 6.1%로 상승하나,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증공급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총액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이러한 보증공급의 확대는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자금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보증 심사 시 비재무적인 요인에 대한 심사비중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5] 보증기관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2008년	2009년				
			계	1/4	2/4	3/4	4/4
신보	총보증공급	290,164	320,000	55,080	103,490	57,000	104,430
	신규보증공급	93,255	125,000	28,000	40,000	20,000	37,000
	보증잔액	303,868	335,000	305,000	321,000	325,000	335,000
기보	총보증공급	125,625	141,000	28,000	50,000	20,000	43,000
	신규보증공급	44,383	57,000	14,300	19,900	8,600	14,200
	보증잔액	125,935	145,000	132,000	140,000	142,000	145,000

주 : ()는 분기별 구성비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신보, 기보 요청자료

2. 보증확대로 인한 방만한 운영의 방지 및 보증제도의 개선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보증공급을 확대할 경우 보증공급의 단순한 확대논리로 인해 그간 문제되어 왔던 보증제도의 방만한 운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경기침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보증제도의 각종 제한조치가 완화되어 향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액이 현 수준보다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공급액이 급격히 늘었던 외환위기 직후 신보와 기보의 대위변제율이 약 10.5%에 달했으며, 2000년 이후 무분별히 늘어난 보증공급액으로 인하여 2004년 대위변제율 역시 7.60%를 기록한 바 있음
- 이러한 보증사고의 증가는 출연금 증가 등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 지므로 향후 보증공급 확대로 인한 보증사고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정부 외 출연금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보증공급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금을 부동산투자, 주식매입 등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관련법 자체에 보증부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제재규정(5년간 정부자금 사용제한 등)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는 별도로 ‘정책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하여 현재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신설의 타당성 및 보증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하는 직접보증방식이며, 정책금융공사의 보증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증하는 간접보증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신용보완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신용등급별로 제한하여도 지원대상이 상당히 중복될 소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³⁾
- 또한 일각에서 정책금융공사의 'On-lending' 운영방식⁴⁾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기존의 보증기관과의 정책혼선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3) 정무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검토보고서」, 2009. 1 참조

4) 공공기관이 민간은행에 대출자금을 전대하고, 민간은행이 자기 책임 하에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발간 목록]

	제 목	발행일	발행기관
제1호	주요국 의회의 금융위기 대응조치	2008.12.12	국회입법조사처
제2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2008.12.18	국회예산정책처
제3호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분석	2008.12.24	국회예산정책처
제4호	경제위기 대응 최신 외국동향(Ⅰ)	2008.12.24	국회도서관
제5호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	2008.12.30	국회예산정책처
제6호	경제위기 대응 최신 외국동향(Ⅱ)	2008.12.30	국회도서관
제7호	경제위기 대응 최신 외국동향(Ⅲ)	2009.1.8	국회도서관
제8호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주요국 정책대응과 시사점	2009.1.13	국회예산정책처
제9호	경제위기 대응 최신 외국동향(Ⅳ)	2009.1.15	국회도서관
제10호	경제위기에 따른 프랑스의 고용대책과 시사점	2009.1.20	국회입법조사처
제11호	빈곤층 지원현황 및 정책시사점	2009.1.21	국회예산정책처
제12호	경제위기 대응 최신 외국동향(Ⅴ)	2009.1.29	국회도서관
제13호	경기침체국면 특징 비교와 시사점	2009.1.30	국회예산정책처
제14호	중소기업 유동성 및 보증 공급 확대방안	2009.2.6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경제위기대응팀 발간시리즈 제14호

발 간 일 2009년 2월 6일
편 집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발 행 처 대한민국국회
인 쇄 처 커뮤니케이션 인맥 (Tel 02·2269·7593)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 (Tel 02·788·465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